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권희린 (장충고등학교 교사)



백만 원짜리 엄마

박수진 장편소설

다산책방 청소년문학 035

주제어 : 돌봄, 가족, 위로, 성장

다산책방 청소년문학의 독서 활동지는
다산청소년 인스타그램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instagram.com/dasan_teens



• 추천사

가족을 혈연이라는 운명적 끈으로만 정의하던 시대는 지났다. 소설 『백만 원짜리 엄마』는 ‘직업 가족 제도’라는 도발적인 상상력을 통해 가족의 본질에 질문을 던진다.

마운드 위에서 자신을 기다려 줄 존재를 갈망하며 ‘가짜 엄마’를 고용한 소년 민찬. 그 부름에 응답한 이는 야구의 상처를 안고 사는 남자 ‘엄만호’다. 엄마가 필요해 남자를 고용한 소년과 엄마로부터 도망쳤던 남자의 만남은 가족의 핵심이 정해진 역할이 아닌 ‘서로를 바라봐 주는 마음’에 있음을 증명한다. 이들의 관계가 온기로 변하는 지점은 평범한 일상에 있다. 계란프라이를 나눠 먹고 새벽길을 나란히 걷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결핍을 응시하며 보폭을 맞춰간다. 여기에 민찬의 세계를 지탱하는 포수 영은과 감독, 하늘이의 존재는 가족의 의미를 더욱 넓게 확장한다. 이 소설은 ‘가족’이라는 고정관념을 허물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타인이 건네는 다정함만으로도 충분히 ‘진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깊은 위로다. 아보카도 씨 앞에서 싹이 트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책이 전하는 낮설고도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길 권한다.

· 학습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목표	활동 내용
1차시	독서 전 활동	표지와 제목을 바탕으로 내용을 추측하고, 소설의 독특한 설정(가족 지원 서비스)을 이해할 수 있다.	[예측하며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의 가격표 의미 추측하기 · 엄마 채용 공고문 쓰기 · 주인공의 설레는 속마음 상상하기
2차시		소설의 주요 사건과 인물의 특징을 파악하고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다.	[사실적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만호의 첫인상 분석하기 · 줄거리 요약과 마음 온도계 그리기 · 인스타그램 형식으로 장면 요약하기
3차시	독서 중 활동	소설 속 상징적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고, 인물의 대사 뒤에 숨겨진 진심을 추론할 수 있다.	[추론하며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란프라이와 아보카도의 상징적 의미 찾기 · 대화 속에 숨겨진 인물의 진심 추론하기 · 인물 관계도 완성하기
4차시		인물 간의 갈등 구조를 분석하고, 사회적 성공과 개인의 행복 사이의 가치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비판적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만호와 최동우의 대립 및 갈등 구조 분석하기 · 성공과 행복의 가치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 마음에 남는 문장 필사하고 생각 나누기
5차시	독서 후 활동	작품 속 위로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 비추어 성찰하고 가족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한다.	[성찰하며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로의 말이 주는 의미와 힘 성찰하기 · 실패를 대하는 가족의 역할 생각하기 ·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쓰고 '진짜 가족' 정의하기
6차시	독서 후 활동	작품의 내용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심리테스트를 통해 주제를 내면화한다.	[창의적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세로 퍼즐로 내용 복습하기 · 심리테스트로 소설 속 닳은꼴 찾기 · 소설의 주제를 담아 새 표지 디자인하기

예측 하며 읽기	『백만 원짜리 엄마』 I. 독서 전 활동 (1차시)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1. 책 표지를 살펴보고 다음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질문	자신의 생각한/상상한 내용
이 소설의 제목은 왜 『백만 원짜리 엄마』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백만 원’은 엄마라는 존재의 [값어치]일까요, 아니면 주인공의 [간절함]의 크기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세요.	
누군가는 “가족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돈을 지불해서라도 필요한 돌봄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소설 속 ‘엄마 고용 서비스’라는 설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주인공 민찬이는 엄마의 조건으로 ‘최민찬의 모든 야구 경기를 직관할 것’을 내걸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하는 ‘가짜 엄마’ 엄만호는 민찬이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백만 원 그 이상의 가치’는 무엇인지 상상해 보세요.	

2. 다음은 주인공 민찬이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해 엄마를 채용하기 전,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어쩐, 너그럽기도 해라. 고마워요, 민찬 군. 그럼, 면접 시작할까요? 그런데 저 민찬 군 채용 조건 보고 완전 팬 됐잖아요. ‘최민찬의 모든 야구 경기를 직관해야 함.’ 카. 박력에, 낭만에, 우리 민찬 군이 다 하네요. 게다가 다른 신청자분들은 섬세한 조건을 기본 다섯 개씩은 깔고 가는데 민찬 군은 딱 그 조건 하나뿐이잖아요. 멋짐 폭발이야, 정말! 아, 제가 다른 신청자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

“근데 담당자님. 보통 다른 신청자들은 어떤 섬세한 조건을 원해요? 궁금해요. 제가 좀 유별난가 싶기도 하고, 좀 더 섬세해져 볼까 싶기도 하고.”

내가 신청한 공공 서비스는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나라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가족 지원 제도라 신청자는 거의 내 또래일 가능성이 컸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보호자가 없으면 보육원에 들어가니까. 나랑 비슷한 환경에 처한 친구들은 어떤 부모님을 원하는지 좀 궁금했다. - 20~21쪽

2-1. 지문에서 이 서비스는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 실제로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될까요? 그 대상과 이유를 적어보세요.

2-2. 민찬이는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혼자 버티는 대신 ‘국가 시스템’이라는 공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민찬이가 사적인 관계가 아닌 ‘공공 서비스’를 통해 가족을 만들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찬이의 성격(자존심, 독립심 등)이나 처한 상황을 상상하여 써봅시다.

2-3. 다른 신청자들이 여러 가지 섬세한 조건을 내걸 때 민찬이는 오직 ‘최민찬의 모든 야구 경기 직관’이라는 단 하나의 조건만 내걸었습니다. 야구 선수 민찬이에게 관중석에서 나를 지켜 보는 ‘엄마’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집안일을 해주는 ‘가사 도우미’와는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보세요.

2-4. 민찬이는 기술적인 도움(요리, 빨래 등)보다 ‘지켜봐 주는 존재’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특별한 조언이나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었던 순간이 있나요? 그때의 기억과 느꼈던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3. 다음은 소설의 시작을 알리는 프롤로그의 일부입니다. 문장 속에 담긴 주인공의 속마음을 상상하며 질문에 답해 봅시다.

‘처음’은 늘 이유 없이 사람을 비장하게 만든다. 첫눈, 첫인사, 첫 경기, 첫 승리, 첫 패배, 첫사랑 그리고 첫 모의고사. 그렇다면 ‘비장하지 않은 처음’도 있을까? 첫 코딱지, 첫 김치, 첫 계란프라이, 첫 민들레, 첫 강아지. 에이, 첫 코딱지는 어쩐지 흔적 없이 말끔하게 잘 파내야 할 것 같아 비장하다. 첫 김치는 꼬맹이들에겐 엄청난 도전이기에 두말할 것 없이 비장하다. 계란프라이도 민들레도 강아지도 마찬가지다.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비장해진다.

그럼 이건 어떨까. 내가 지금 만나러 가는 첫 엄마. 첫 엄마라. 피식 웃음이 터졌다. ‘첫 엄마’의 의미를 곱씹어 봤다. 그건 나에게 엄마가 한 번도 없었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혹은 다섯 번째 엄마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 프롤로그 중

3-1. 주인공은 첫 경기나 첫 승리처럼 거창한 것뿐만 아니라 ‘첫 김치’, ‘첫 계란프라이’조차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비장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첫 엄마’를 만나러 가면서는 왜 ‘피식’ 웃음이 터졌을까요? 주인공의 웃음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허탈함, 어색함, 혹은 기대감 등)을 추측해 보세요.

3-2. 보통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민찬이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엄마를 ‘선택’하고 ‘고용’하려 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관계’와 ‘내가 필요해서 선택한 관계’ 중 어떤 관계가 더 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와 함께 짧은 의견을 적어주세요.

3-3. 나의 ‘엄마’ 채용 공고 써보기. 여러분이 소설 속 주인공 민찬이라고 생각하고, ‘가족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봅시다.

구분	내용
채용 대상	
필수 조건	
내가 줄 수 있는 것	
신청 사유	

1. 민찬이의 눈으로 본 ‘엄만호’의 첫인상 키워드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	--	--

1-1. 내가 만약 민찬이라면, 이 사람을 엄마로 채용했을까요? (예 / 아니오)

— 그 이유는?

.....

.....

.....

2. 『백만 원짜리 엄마』의 줄거리를 5단계로 정리해 보세요.

단계	내용 요약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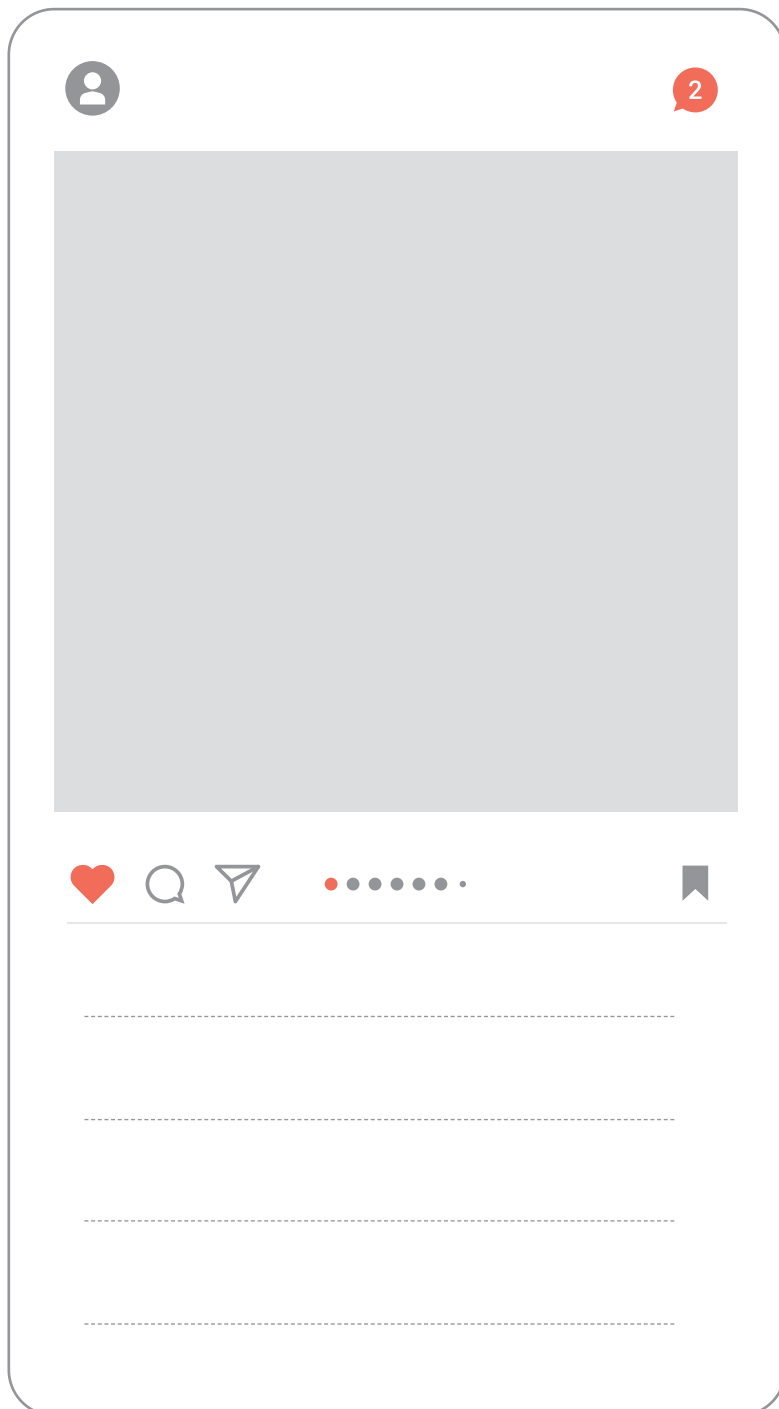
2-1. 위 소설의 각 단계 중 마음에 드는 한 장면을 골라 ‘인스타그램’ 게시물 형식으로 요약해 보세요.

100°C					
80°C					
60°C					
40°C					
20°C					
온도 / 사건 (이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2-2. 위 소설의 각 단계 중 마음에 드는 한 장면을 골라 '인스타그램' 게시물 형식으로 요약해 보세요.

[활동 가이드]

- 구성: [장면 그림] + [해시태그 3개] + [민찬의 한 줄 일기]
- 예시: #봉황대기 #실패해도_괜찮아 #진짜_내편
- 한 줄 일기: 오늘 처음으로 “괜찮아. 아들, 너무 잘했어!”라는 말을 들었다. 엄마에게서.”



1. 다음 지문을 읽고 빛나는 유망주였던 엄만호가 왜 스스로 그림자가 되어야 했는지 분석해 봅시다.

엄마는 특별하지 않은 일상을 반복함으로써 나를 땅으로 데려왔다. 그저 매일 그랬던 것처럼 계란프라이를 세 개씩 해주고, 반신욕하는 아보카도의 물을 갈아주고, 상처 난 턱에 연고를 발라줬다. 아침에 일어나면 엉망이 되어 있는 나의 머리 모양을 꾸준하게 놀리고, 실패하는 맛에 만드는 오믈렛을 요리해 나눠 먹고, 산책한다는 핑계를 대며 새벽 훈련 가는 내 옆에서 나란히 걸었다. 변함없이 굳건하게 돌아가는 일상. 그 일상 속에서 나는 김 여사가 말했던 ‘주제를 아는 빈 수레’로 남을 수 있었다. 그렇게 별일 없는 날들이 지나가고, 나뭇잎들의 초록이 나 날이 깊어지며 여름이 되었다. - 172~173쪽

- 1-1. 엄만호가 매일 아침 해주는 ‘계란프라이 세 개’는 화려한 요리는 아니지만 민찬이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느낀 계란프라이의 상징적인 느낌은 무엇인가요? 아래 키워드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 그 이유를 써보세요.

키워드

[소박함 / 꾸준함 / 따뜻함 / 일상적인 사랑 / 든든함 / 기타()]

이유

- 1-2. 불안하게 흔들리거나 높게 떠 있던 민찬이는 엄마의 돌봄 덕분에 비로소 ‘땅에 내려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치열한 승부의 세계(야구)에서 긴장하며 살던 민찬이에게 이런 ‘내려앉음’은 어떤 감정을 선물했을까요?

- 1-3. 민찬이는 엄마가 해주는 사소한 일들(연고 발라주기, 머리 모양 놀리기, 같이 걷기)을 통해 회복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음이 힘들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있나요? (예: 자기 전 음악 듣기, 친구와 실없는 농담 하기,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기 등)

1. 다음 지문을 읽고 빛나는 유망주였던 엄만호가 왜 스스로 그림자가 되어야 했는지 분석해 봅시다.

최동우는 같은 학년의 좌완투수와 함께 차세대 야구계를 이끌어 갈 루키로 손꼽혔다. 만년 2등이었던 야구부가 봉황대기 우승컵을 차지한 결승전에서 최동우는 홈런을 세 개나 쳤다. 거포형 꽃미남 타자의 얼굴은 각종 마스크를 타고 금방 유명해졌다. 그러나 경기의 끝이 보일 때까지 마운드를 지키며 열네 명의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단 한 점도 허용하지 않은 채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그해 봉황대기 MVP를 받은 투수의 존재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엄만호는 야구만 했다. 야구 말고는 하고 싶은 게 없었고 야구가 삶의 전부였다. 하지만 주목받고 싶지는 않았다. 주목은 엄만호의 엄마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것이고, 결국 엄만호에게서 야구를 앗아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엄만호는 최동우 뒤에 철저히 숨었다. 모든 공을 최동우에게 떠넘겼다.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관심을 최동우가 짝씩 끊어 가져가 주기를 바랐고, 최동우의 스타성과 타고난 허세는 엄만호를 가리기에 충분했다.

- 142~143쪽

1-1. 엄만호는 야구가 삶의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목받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했나요? 지문에서 그가 가장 걱정했던 ‘결과’가 무엇인지 찾아 적어 보세요.

1-2. 최동우의 뒤에 숨어서 모든 공(영광과 관심)을 떠넘겨야 했던 당시 엄만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감정 단어장>에서 두 가지를 골라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감정 단어장 [조마조마함 / 답답함 / 안도감 / 서글픔 / 억울함 / 간절함 / 무거움]

1-3. 엄만호는 자신의 ‘엄마(와 나)’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야구’에서 주인공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최동우의 그림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의 엄만호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나의 선택

[빛나는 스타 선수로 주목받기] vs [엄마(와 나)를 지키기 위해 그림자로 남기]

이유

2. 다음은 최동우와 엄만호가 민찬이에게 건네는 전형적인 메시지입니다. 각 인물이 생각하는 ‘성공’과 ‘가족’의 정의를 추론해 보세요.

구분	최동우(아빠)	엄만호(가짜 엄마)
핵심 키워드	#할아버지 #호적 #맞춤형_식단	#민찬이의_마음 #강제_금지 #멘탈_관리
주요 대사	<p>최동우는 연신 회장님의 눈치를 보며 상황을 설명했다. ‘할아버지께서’ 감사하게도 나를 호적에 넣어 다고 하시고, ‘할아버지께서’ 내가 세계 최고의 투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해 준다고도 하시고, ‘할아버지의 손자로’ 좋은 환경과 실력 있는 코치 밑에서 계란 따위가 아닌 최고급 단백질이 포함된 운동선수 맞춤형 식단을 섭취하며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셨으니, 이를 엄청난 행운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이다.</p> <p>- 204쪽</p>	<p>“네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하자고 하면 민찬이가 순순히 할 것 같아? 절대 안 하지. 그럼 네 아버지 성격에 어떻게 하겠어? 강제로 하겠지.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한 운동선수한테 그런 일을 겪게 하는 게, 그게 아빠냐?”</p> <p>- 225 ~ 226쪽</p>
강조하는 것	성공을 위한 ()	아이의 ()

2-1. 최동우는 ‘혈연(진짜)’을 강조하며 엄만호를 공격하지만 엄만호는 ‘일상(정성)’으로 민찬이를 지켜냅니다. 여러분은 ‘진짜 가족’을 결정짓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혈연 vs 함께 보낸 시간과 정성)

2-2. 최동우는 ‘최고급 단백질 식단’과 ‘좋은 코치’를 엄청난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엄만호는 최동우에게 “그게 아빠냐?”라고 일침을 가했을까요? 엄만호가 생각하는 ‘진짜 아빠’의 조건이 무엇인지 지문 속 단어를 활용해 적어 보세요.

3. 소설 속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나 문장을 찾아 그 구절을 필사하고 그 장면에 대한 주인공의 감정은 어땠는지, 그때의 나의 감정은 어땠는지를 써보세요.

페이지	구절 필사	주인공의 감정	나의 감정
<p>예시) 115쪽</p>	<p>“시간이라는 아주 강력한 필요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하지. 이럴 때 보면 시간은 눈에 보이는 게 맞아. 모든 것을 이기는 힘.”</p>	<p>처음에는 아보카도 씨앗이 갈라진다는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차도를 걸을 때 바깥쪽에 서서 나를 보호하며 걷는 엄마(엄만호)의 행동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낀다. 백만 원짜리 계약 관제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쓰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상대를 보며 단단했던 마음의 경계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며 열리기 시작한다.</p>	<p>누군가와 가족이 된다는 건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함께 길을 걷고 아보카도 물을 갈아주는 사소하고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는 일이라는 점이 감동적이다.</p>

성찰하며 읽기	『백만 원짜리 엄마』 V. 독서 후 활동 (5차시)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1. 봉황대기 결승전이 끝난 후 민찬이는 생애 가장 큰 ‘실패(패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앞에서 두 어른이 보여준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구분	아빠(최동우)	가짜 엄마(엄만호)
경기 후 반응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실망감을 드러냄	결과와 상관없이 달려와 안아주며 위로함
실패의 정의	다음 기회를 얻지 못하는 [탈락]	더 단단해지기 위해 거치는 [과정]

여러분이 만약 큰 실패를 겪었을 때, 곁에 있는 가족이 어떤 말을 해주길 바라나요?
그 말이 여러분의 다시 일어설 힘(회복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적어 보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	
그 이유	

2. 등장인물들이 내뱉는 대사를 보고 어떤 상황에서 누가 내뱉은 대사인지 짐작해 보세요.

등장인물	대사	페이지
()	“근데 담당자님. 보통 다른 신청자들은 어떤 섬세한 조건을 원해요? 궁금해요. 제가 좀 유별난가 싶기도 하고, 좀 더 섬세해져 볼까 싶기도 하고.”	21쪽
()	“뭘가 들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야. 알짜배기 하나가 들었을 수도 있지. 자신 있는 거지. 그 알짜배기 하나가 개살구 5만 개보다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알거든. 아가, 기억해. 빈 수레의 자신감. 응? 절대로 걸모습에 속으면 안 돼. 그리고 절대로 절대로 속여서도 안 되고.”	28-29쪽
()	“쓸모없는 것들이 우리를 살게 만든단다, 요 각박한 어린 양아. 쓸모없는 것 들을 미리미리 충전해 뒀야 쓸모 있는 일을 할 에너지가 생긴다고. 응?”	53쪽
()	“양질의 소고기로 만들었다면 버거도 괜찮겠지? 할아버지께서 민찬이 식단 철저히 챙기라고 당부하셨어.”	209쪽
()	“말 끝났지. 뭘가 더 필요해? 너는 최민찬. 나는 네이션 최. 너는 내 새끼야. 네이션 최의 피를 가진 최민찬. 그걸로 끝. 내 밑으로 들어와. 잔말 말고.”	204쪽

*정답: 민찬, 김 여사, 엄만호, 최동우, 회장님

1. 『백만 원짜리 엄마』

소설을 읽고

다음 십자말풀이(가로세로 퍼즐)를

풀어보세요.

13			14									
								10				
	12		4		8							
									17			
							11					
												2
	3			1								
5												
15				16			6		9			
						7						
										18		

[가로 문제]

1. 엄만호가 민찬이에게 매일 아침 차려주며 일상의 정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음식은?
4. 민찬이의 할머니인 김 여사가 가장 싫어했던 것은?
5. 회장님이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사용한 사자성어는?
7. 소설의 갈등 구조에서 '혈연'을 중시하는 인물이 최동우라면, '정서적 유대와 시간'을 중시하는 인물은?
9. 민찬을 키워준 할머니의 직업은?
10. 주인공 민찬이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야구부의 학교 이름은?
13. 엄만호가 단단한 아보카도 씨앗이 갈라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14. 엄만호는 민찬이에게 기술보다 이것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이 용어는?
15. 야구부 내에서 민찬이의 포지션은?
17. 민찬이의 아빠인 최동우가 민찬이와 연락한 수단은?
18. 싹을 틔운 아보카도가 열매를 맺는 데 걸리는 시간은?

[세로 문제]

2. 최동우가 민찬이에게 성공하기 위한 행운이라며 강요했던 검사는?
3. 엄만호는 과거에 가졌던 직업은?
6. 엄만호에게 매달 지불되는 특별 수당은?
8. 민찬이의 친부인 최동우가 타는 차로, 부유함과 과시적인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외제 차 브랜드는?
11. 야구에서 투수가 포수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은?
12. 엄만호가 만들어 부른 민찬이의 별명은?
16. 민찬이의 야구부 동료이자 친구로, 민찬이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응원해 주는 인물은?

정답

13	시	간		14	멘	털															
													10	풍	향	고					
		12	인		4	과	대	8	포	장											
			류						르							17	카	톡			
			애						쉐				11	마							
													누						2	유	
		3	야				1	계	란	프	라	이								전	
5	일	구	일	무																자	
			선																	검	
15	투	수					16	영					6	백		9	세	신	사		
								은			7	업	만	호							
													원						18	십	년

2. [정밀 심리테스트] 소설 『백만 원짜리 엄마』 인생 포지션 테스트!

각 문항에서 자신과 더 가까운 것을 고르고,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알파벳(A, B, C, D)을 확인하세요.

유형	특징
STEP 1 나의 평소 스타일	1. 중요한 시험이나 시험을 앞둔 전날 밤, 나는? ㉠ “무조건 이겨야 해.” 승리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전의를 다진다. ㉡ “내 페이스만 유지하자.” 결과보다 내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집중한다.
	2. 친구가 나에게 “너는 참 ㅇㅇ해”라고 할 때, 어떤 말이 더 기분 좋은가? ㉢ “너는 참 마음이 따뜻하고 든직해.” ㉣ “너는 참 생각이 기발하고 말썬씨가 좋아.”
	3. 누군가 나에게 큰 도움을 준다고 제안한다면? ㉤ 나에게 확실히 이득이 되는 제안인지 냉철하게 따져본다. ㉥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마음을 먼저 살핀다.
STEP 2 소설 속 장면으로 보는 가치관	4. 아빠(최동우)가 강조하는 ‘성공을 위한 맞춤형 식단’을 마주한다면? ㉦ “성공하려면 이 정도 관리는 필수지.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게 좋아.” ㉧ “맛은 좀 덜해도, 누군가 나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 준 계란프라이가 더 힘이 나.”
	5. 민찬이가 아빠의 ‘포르쉐’를 탔을 때 느낀 위화감, 만약 나라면? ㉨ “성공의 상징이지!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는 게 중요해.” ㉩ “번쩍거리는 겉모습보다는 내가 진짜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가 더 소중한.”
	6. 엄만호가 민찬이에게 들려준 ‘첫사랑’ 이야기처럼, 나에게 아픈 기억이 있다면? ㉪ 굳이 꺼내지 않고 혼자 이겨내며 단단해지려 노력한다. ㉫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내 아픔을 공유하며 위로받고 싶다.

유형	특징
STEP 3 관계와 선택	7. 시험(결승전)에서 졌을 때,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 “괜찮아. 아들, 너무 잘했어.” (존재 자체를 긍정해 주는 말) ㉡ “이번 패배가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다음엔 꼭 이기자..” (성취를 독려하는 말)
	8.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진짜 행운’이란? ㉠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얻는 것. ㉡ 어떤 상황에서도 내 중심을 잃지 않고 ‘나다운 공’을 던지는 것.
	9.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더 선호하는 방식은? ㉠ ‘얼굴 보고 토크’ 하는 것처럼, 눈을 맞추며 솔직하고 유쾌하게 대화하기. ㉡ 거창한 말보다는 따뜻한 시선과 묵묵한 응원을 나누기.
STEP 4 깊은 내면의 목소리	10. 마운드 위에 홀로 선 투수처럼 외로운 순간,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은? ㉠ ‘이 공은 나의 공이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강한 확신. ㉡ 관중석 어딘가에서 나를 온전히 믿어주는 사람의 존재.
	11. 할아버지가 제안한 ‘보장된 미래’와 엄만호가 보여준 ‘정성 어린 일상’ 중 나의 선택은? ㉠ “확실한 미래가 있어야 행복도 지킬 수 있어. 기회를 잡는 게 맞지.” ㉡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성공은 의미 없어. 내 마음이 가는 쪽을 택할래.”
	12. 소설 속 아보카도 씨앗처럼, 싹을 틔우기 위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 지루함을 깨뜨릴 기발한 아이디어와 변화의 계기. ㉡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시간.

심리테스트 결과

유형	결과
유형 A. 목직한 직구 투수 (민찬 타입) - 나의 공은 내가 던진다! 자존감 수호자	· 성향 분석 당신은 주변의 기대나 사회적 성공의 잣대보다 나 자신의 떳떳함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포르쉐(아빠의 제안)보다, 비록 소박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계란프라이(엄만호의 정성)에서 진짜 힘을 얻습니다. 남들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웃기보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마주하려 노력하는 단단한 내면을 가졌습니다.
	· 강점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아보카도 씨앗처럼 껍질을 깨기까지 시간이 걸릴지라도, 한번 시작하면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냅니다.
	· 성장을 위한 조언 마운드 위는 외롭지만, 포수가 공을 받아주기에 투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혼자 다 해결하려 하기보다 주변의 진짜 내 편과 마음의 짐을 나누어 보세요.

유형	결과
<p>유형 B.</p> <p>튼튼한 포수 (엄만호 타입)</p> <p>-</p> <p>어떤 공도 다 받아줄게! 무한 긍정의 위로자</p>	<p>·성향 분석</p> <p>당신은 정성과 시간의 힘을 믿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투박한 손으로 나뭇을 무치고 아이를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엄만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결과가 나빠서 고개 숙인 친구에게 "괜찮아, 너무 잘했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p> <p>·강점</p> <p>타인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과 묵묵히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탁월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멘탈을 회복합니다.</p> <p>·성장을 위한 조언</p> <p>남의 공을 받아주는 데 열중하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맛있는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주세요.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p>
<p>유형 C.</p> <p>완벽한 구단주 (최동우 타입)</p> <p>-</p> <p>결과로 가치를 증명하라! 효율 중심의 전략가</p>	<p>·성향 분석</p> <p>당신은 목표가 뚜렷하고 추진력이 넘치는 전략가입니다. 최고의 환경(호적, 식단, 코칭)이 최고의 결과를 만든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효율성을 중시하며, 자신과 주변 사람이 성공 가도에 오를 수 있도록 판을 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p> <p>·강점</p> <p>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추진력이 압도적입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눈이 밝아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p> <p>·성장을 위한 조언</p> <p>성공이라는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의 마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포르쉐의 속도를 줄이고, 곁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맞추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p>
<p>유형 D.</p> <p>재기발랄한 유격수 (하늘 타입)</p> <p>-</p> <p>답답한 상황엔 기발한 반전! 아이디어뱅크 조력자</p>	<p>·성향 분석</p> <p>당신은 호기심이 많고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친구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새로운 돌파구를 떠올리게 하거나 힌트를 주는 조력자입니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솔직하고 유쾌한 대화를 통해 관계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p> <p>·강점</p> <p>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창의성과 정보력이 당신의 매력입니다. 친구들에게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가이드입니다.</p> <p>·성장을 위한 조언</p> <p>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아보카도 씨앗처럼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재미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한결같은 진심을 담은 연습을 해보세요.</p>

3. 『백만 원짜리 엄마』의 새로운 표지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소설의 주제를 담아 앞표지와 뒤표지를 직접 디자인해 보세요.

□ 앞표지

그림, 상징, 색깔 등을 사용해 소설의 주제를 담아 디자인해 보세요.

(예시)

• 중심 이미지

화면 가운데에 단단하고 검은 아보카도 씨앗을 배치하고, 그 씨앗이 살짝 갈라지며 틈 사이로 작은 야구공의 실밥이 보이게 그려 '성장'과 '꿈'을 중시하는 주제를 담는다.

• 대비되는 상징

표지 왼쪽 구석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선으로 그려진 포르쉐의 엠블럼을, 오른쪽 구석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계란프라이를 배치해 '물질적 풍요'와 '정서적 정성'의 대립을 보여준다.

□ 뒤표지

책을 소개하는 글을 3~4문장으로 작성해 보세요. 줄거리 요약과 이 책의 매력을 담아야 합니다.

(예시)

마운드 위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공을 던지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엄마의 온기가 그리웠던 소년 투수 민찬. 민찬은 간절했던 엄마의 품을 되찾기 위해 '가족 지원 서비스'의 문을 두드리고, 백만 원이라는 비용으로 엄마호를 고용한다.

계약으로 맺어진 서늘한 관계일 줄 알았지만, 매일 아침 차려지는 소박한 계란프라이와 묵묵히 전해지는 따뜻한 시선은 민찬의 얼어붙은 내면을 조용히 녹이기 시작한다. 『백만 원짜리 엄마』는 그들이 어떻게 '진짜 가족'의 온기로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아이가 얼마나 단단하게 성장하는지를 섬세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 내가 디자인한 『백만 원짜리 엄마』의 표지 •

--	--